

20
22

두산연강예술상

20
22

두산연강예술상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0년 두산그룹 초대회장 연강 박두병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제정한 두산연강예술상-
항상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던 연강의 뜻을 이어
젊은 예술가들을 응원하기 위해 만든 상입니다.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자신의 예술 세계를 넓혀 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것은 기업의 책임이자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지난 몇 년간 우리 모두는
유례없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우 혹독했을 시간을 보내면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예술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문화예술을 이끌어갈 이홍도, 정희민 두 분께
이번 수상이 위로와 응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산의 오랜 철학이 담긴 두산연강예술상이
올해로 열 세 번째 수상자를 만났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DOOSAN 두산연강재단 이사장 

제정의 뜻

두산연강예술상은 두산그룹 창업의 초석을 다지고 인재양성에 힘써온 연강(蓮崗) 박두병 초대회장의 뜻을 이어 공연·미술 분야의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에 제정한 상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이 미래라고 생각하는 두산의 의지와 생각을 담아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합니다.

후보자 자격

공연·미술 분야에서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가는 만 40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의 예술가

선정과정

심사위원 선정 → 후보 추천 및 심사 → 수상자 확정

상금 및 부상

공연부문

수상자 1명(팀)
상금 3천만 원
공연 제작 지원 (2024년 하반기)

미술부문

수상자 1명(팀)
상금 3천만 원
전시 지원 (2023년 하반기)
해외 레지던시 입주 지원 (2024년)

2022 제13회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공연부문 이흥도

심사위원 강량원 (연출가)
김기란 (연극평론가)
이경미 (연극평론가)

미술부문 정희민

심사위원 김성은 (백남준아트센터 관장)
김지연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
문혜진 (미술비평가)



이흥도

승실대학교 예술창작학부 언론홍보학과 졸업

극작

- 2022 <베케트 몽타주>
- 2021 <아직 연극이 있던 시절에 대한 소문들 또는 변신 이후의 극장>
<2032 엔젤스 인 아메리카>
<이흥도 자서전(나의 극작 인생)>
- 2020 <미국연극/서울합창>
<컬럼비아대 기숙사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동양인 임산부와
현장에서 도주한 동양인 남성에 대한 뉴욕타임즈의 지나치게
짧은 보도기사>

공동작업

- 2021 <없는 극장>
<불필요한 극장이 되는 법>
<서울코메디>

연출

- 2021 <돼지의 딸>
- 2019 <미국연극 리메이크>

수상

- 2020 한국일보 신춘문에 희곡 당선
- 2018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 젊은 비평가상 가작(공동수상)



2021 <돼지의 딸> @연극실험실 혜화동1번지



2022 <베케트 몽타주> @신촌극장



2021 <이흥도 자서전(나의 극작 인생)>
@신춘문화발전소



2021 <서울코메디> @노들섬



2021 <없는 극장> @아르코예술극장



2021 <2032 엔젤스 인 아메리카>
@신춘문화발전소



2020 <미국연극/서울합창>
@대하로예술극장 소극장

공연부문 심사평

우리는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위기에 직면했는지를 하루가 다르게 목격하고 있는 중이다. 인류의 시간과 공간을 가득 채워온 진보에 대한 강한 열망 한편에 차곡차곡 쌓여온 회의와 불안이 도처에서 막바지 경보음을 울리고 있다. 우려했던 자본시장의 질서는 파괴되었고,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은 점차 환상이 되어가고 있다. 무차별적인 환경파괴로 인해 지구 생태계는 극한의 위험에 노출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류를 극심한 혼란에 빠뜨린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다. 인간이 앞으로 개발이란 명목으로 계속 자연을 파괴하면 할수록, 야생동물의 개체수는 줄어들 것이고, 그 결과 바이러스들은 자연스럽게 인간 쪽으로 옮겨와 제2, 제3의 코로나 사태가 도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전무후무한 거대한 위기 앞에서 이제 인간과 그 인간이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에 대해 치열하게 반성하며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넘어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생산적 대안을 찾아야 할 때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연극은 늘 극장 밖 세상의 정치, 사회, 문화, 무엇보다 기술적 전환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변화해왔다는 점에서 작금의 이 상황은 지금, 여기의 연극에게는 또 한번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시점인 것이 분명하다.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도 중

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연극은 그것을 어떻게 새로운 형식의 연극적 소통으로 구현해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무감각을 흔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고민이 절실하다. 이는 한국연극이 당면한 과제이기도 하다. 내용이건 형식이건 소위 연극에서의 새로움은 관객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양식적 장치가 아니라, 세상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에 대해 다가가는 중요한 정치적 기제다.

2022년 두산연강예술상의 최종 수상자로 이홍도 작가를 결정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컬럼비아대 기숙사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동양인 임산부와 현장에서 도주한 동양인 남성에 대한 뉴욕 타임즈의 지나치게 짧은 보도기사>, <미국연극/서울합창>, <이홍도 자서전(나의 극작 인생)>, <2032 엔젤스 인 아메리카> 등 이홍도 작가는 세상이 만든 경계 위에서 있는 한 인간이자 작가로서의 자신의 정체성, 무엇보다 당사자성에 대한 개인적 경험과 입장을 글쓰기의 주요 기반으로 삼아왔다. 최근 공연한 <베케트 몽타주>에서는 베케트와 리클루시, 그리고 자신과 배우 윤상화라는 서로 다른 층위를 교차시키는 가운데 물리적, 정신적으로 닫힌 상황에서 벗어날 출구로써의 연극에 대해 질문한다.

작가로서 그리고 연출로서 젠더, 인종 등 모든 인위적 경계에 대해 다각적인 질문을 제기하며 독창적 행보를 이어온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전지적 관점에서 조망하며 선과 악, 진실과 거짓을 제시하는 이야기꾼 혹은 전문가와는 거리가 멀다. 그는 희곡의 메시지는 절대 작가에게서 관객으로 일방향적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대신 그는 자신의 내러티브를 교차와 충돌, 조립과 해체, 재구성의 패턴을 통해 만들어지는 일종의 안드로이드 텍스트에 가깝게 구현한다. 열린 기표들은 하나의 물질이 되어 다양한 층위를 오가며 연속해서 의미작용의 파동을 일으킨다. 이제껏 그의 희곡을 접한 연출과 배우들이 유독 전례 없이 독특한 연극성을 창출하며 무대 공간을 역동적으로 구성해낸 것도 그가 자신의 희곡을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모두가 함께 직조해야 하는 열린 관계의 텍스트로 제안하기 때문일 것이다. 관객 또한 작가가 만든 설명이나 주장에 대한 기계적 동의, 그리고 감성 프레임에 갇히지 않는다. 오히려 관객은 작가가 열어놓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 나가는 가운데, 그 안에 동시대의 수많은 공적인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음을 알게 된다. 이렇듯 이흥도의 작품은 재현된 팝진성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만큼 혼란스럽고, 전개라고 할 것 없는 파편을

나열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하지만 작가와 함께 소위 '당자사성'의 맥락으로 채 들어가지 못하는 관객 혹은 독자를 어떻게 그의 희곡 안으로 초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더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의 작업이 창작 당사자로서의 '나'에만 머물지 말고, 내가 세계와 보다 다층적으로 만날 수 있는 예술적 방법에 대해 모색해 나가기를 바란다. 그럼에도 예술의 발전은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서 찾아야 한다는 믿음으로, 현대 예술의 특징인 '메타性'을 끈질기게 탐색하는 이흥도의 작가의식은 분명 격려받을 만하다. 이러한 이흥도 작가, 연출가의 연극적이고 놀이적인 극작술에 지지를 보내면서, 앞으로 더 많은 확신을 갖고 작업을 이어 나아가길 기대하며 그를 2022년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로 선정한다.

심사위원 **강광원 김기란 이경미**



정희민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 전문사 평면조형 전공 졸업
 홍익대학교 회화과 졸업

개인전

- 2022 <How Do We Get Lost in the Forest>, P21 & 신도문화공간, 서울
- 2021 <Seoulites>, 뮤지엄헤드, 서울
- 2020 <If We Ever Meet Again>, 021 갤러리, 대구
- 2019 <On Vacation>,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 <An Angel Whispers>, P21, 서울
- 2018 <UTC-7:00 JUN 오후 세시의 테이블>, 금호미술관, 서울
- 2016 <어제의 파랑>,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서울

단체전

- 2022 <물결 위 우리>, 부산비엔날레, 부산
- <Your Present>, 페이스갤러리 서울, 서울
- 2021 <걱정을 멈추고 폭탄을 사랑하기>, 남서울미술관, 서울
- 2020 <그림 그리다>, 경기도미술관, 안산
- <가볍고 투명한>, 원앤제이 갤러리, 서울
- 2019 <젊은 모색 2019 : 액체 유리 바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정물화전>, 시청각, 서울
- 2018 <울오버>, 하이트컬렉션, 서울
- <그레이 네이비 블랙>, 주홍공한국문화원, 홍콩
- 2017 <Snow Screen>, 아카이브룸, 서울
- 2015 <Visitor Q>, 탈영역우정국, 서울 외

레지던시

- 2022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
- 2020 국립현대미술관 고양 레지던시, 고양 외

수상

- 2020 신도 작가지원 프로그램, 신도리코 외



Installation View of **Stop Worrying and Love the Bomb**
 2021, Nam-Seoul Museum of Art, Seoul



Installation View of
Every Wave You Will Sense
 2021, PeachesDown, Seoul



Installation View of **An Angel Whispers**
 2019, P21, Seoul



When We Get By 2022,
 acrylic and inkjet transferred gel medium on canvas, 45 x 60cm

미술부문 심사평

올해 두산연강예술상 미술부문의 추천은 예년과 동일하게 진행했다. 세 명의 심사위원이 세 명씩 추천해 형성된 후보자 그룹은 회화, 조각/설치, 영상, 사운드·미디어 등 여러 매체를 망라했다. 만 40세 이하의 작가를 대상으로 하는 상의 취지상 추천된 작가들은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 다양했으나, 어느 정도 작업 방향이 잡힌 30대 중반에 집중되었다. 언제나 그렇듯 추천 작가들의 경향은 산포되어 있지만, 조각의 재조명이나 포스트인터넷 시대의 회화, 포스트휴먼 논의, 데이터로서의 시간과 사운드 실험 등 최근 현장에서 대두되거나 조명받는 쟁점이 일부 반영되어 있기도 했다.

수상자 결정을 위한 토론은 비교적 이견이 적은 편이었다. 예년과 달리 중복 추천된 작가가 존재했고, 올해 추천하지 않은 심사위원도 이전 기수에 해당 작가를 추천한 적이 있어서 작업의 질과 수상의 적격성에 있어 일차적인 합의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엄밀한 진행을 위해 각 추천자에 대해 추천 사유를 듣고 질문 및 의견을 제시하는 검토 과정을 이차에 걸쳐 진행했다.

최종적으로 수상자는 이번 없이 다수의 추천을 받은 정희민으로 결정되었다. 최종 수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해당 작가가 두산연강예술상의 취지나 성격에 부합하는가뿐만 아니라 이 상의 수상이 작가의 발전에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중요하게 고려했다. 정희민의 경우 이미 촉망받는 젊은 작가로 여러 기관에서 인정받고 수상도 한지라 형평성에 있어 이중적 혜택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으나, 부상으로 제공되는 해외 레지던시 입주 기회가 국내에서 주로 활동하고 성장한 작가에게 새로운 눈을 틔워주는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해 상대적으로 해외 경험이 많은 다른 작가들에 비해 수상이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동시대성을 강조하는 상의 성격으로 인해 기존 수상자들이

사진이나 영상 작가인 경우가 많아 회화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선정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정희민은 2015년경부터 활동을 시작해 급속도로 발전 중인 회화 작가로, 디지털 장치의 일상화로 변화된 이미지의 존재 방식 및 지각의 변화를 회화로 탐색한다. 동시대 이미지의 생산·유통·소비 방식을 다루는 작가 중 정희민이 돋보이는 것은 포스트인터넷의 감각과 회화에 대한 매체 연구를 상당한 정도의 깊이와 균형감으로 결합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통적인 매체인 회화를 통해 디지털 이미지의 속성과 그로 인한 매체 및 지각 변화를 연구한다는 점이 정희민을 동시대 회화의 대표적인 작가로 꼽을 수 있게 한다. 상당한 정도의 작업 양과 매 전시마다 새로운 형식 실험을 한다는 점도 발전 가능성을 기대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디지털 이미지 감각은 보통 질감이 다른 여러 레이어의 파편을 캔버스 위에 얇게 생성하는 방식으로 구현되나, 이런 실험이 하나의 스타일로 고정되거나 캔버스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는 것이 그림의 의미 층위를 다양하게 만든다. 캔버스의 물리적 변형, 복수의 캔버스 배치, 영상과의 결합, 말거나 늘어놓는 평면 형식 일반으로 확대, 나아가 입체와 영상, VR에 이르기까지, 매체 실험은 회화에 중심을 두되 내부에 갇히지 않고 매체 일반으로 확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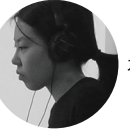









이번 수상과 해외 레지던시 경험이 무언가를 보여줘야 하는 압박감이나 수행해야 할 또 다른 과제로 다가오기보다 한박자 숨을 고르며 보다 긴 호흡으로 향후의 작업 방향과 방법론을 모색할 수 있는 내적인 충전과 도약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수상자에게 깊은 축하를 전한다.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2010년-2022년)

공연부문

- | | | | | | | | | | | | |
|------|--|-----|------|--|-----|------|--|-----|------|--|-----|
| 2022 |  | 이흥도 | | | | | | | | | |
| 2021 |  | 설유진 | 2020 |  | 윤혜숙 | 2015 |  | 이자람 | 2014 |  | 이경성 |
| 2019 |  | 윤미현 | 2018 |  | 김정 | 2013 |  | 성기웅 | 2012 |  | 김은성 |
| 2017 |  | 이연주 | 2016 |  | 구자혜 | 2011 |  | 윤한솔 | 2010 |  | 김낙형 |

미술부문

- | | | | | | | | | | | |
|------|---|------------|---|--|---|-----|---|-----|---|-----|
| 2022 |  | 정희민 | | | | | | | | |
| 2021 |  | 업체 eobchae | | | | | | | | |
| 2020 |  | 김경태 | 2019 |  | 김주원 | | | | | |
| 2018 |  | 이윤이 | 2017 |  | 권하윤 | | | | | |
| 2016 |  | 김희천 |  | 박광수 |  | 이호인 | | | | |
| 2015 |  | 강정석 |  | 오민 |  | 유목연 | | | | |
| | | | | 2014 |  | 강동주 |  | 안정주 |  | 이윤성 |
| | | | | 2013 |  | 김민애 |  | 김영나 |  | 차재민 |
| | | | | 2012 |  | 김상돈 |  | 김지은 |  | 장지아 |
| | | | | 2011 |  | 박주연 |  | 이소정 |  | 이재이 |
| | | | | 2010 |  | 구동희 |  | 김시연 |  | 박미나 |

* 2022년 현재까지 공연부문 13명, 미술부문 27명이 수상했습니다.

예술을 통한 사회공헌, 두산아트센터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DOOSAN encourages and supports young artists and their innovative endeavours



연강홀

1993년 두산 창업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연강(蓮崗) 박두병 회장의 생가터에 지은 연강홀. 2007년 리노베이션을 거치면서 620석 규모의 중극장으로 재탄생했습니다.



Space111

두산 창립 111주년을 기념해 문을 연 Space111.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실험과 도전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두산갤러리

2007년 서울에 개관해 비영리로 운영해온 두산갤러리. 한국 작가들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해외 레지던시 입주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작자 지원

DAC 아티스트

공연 분야의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 선정하여 창작활동을 지원합니다.

두산아트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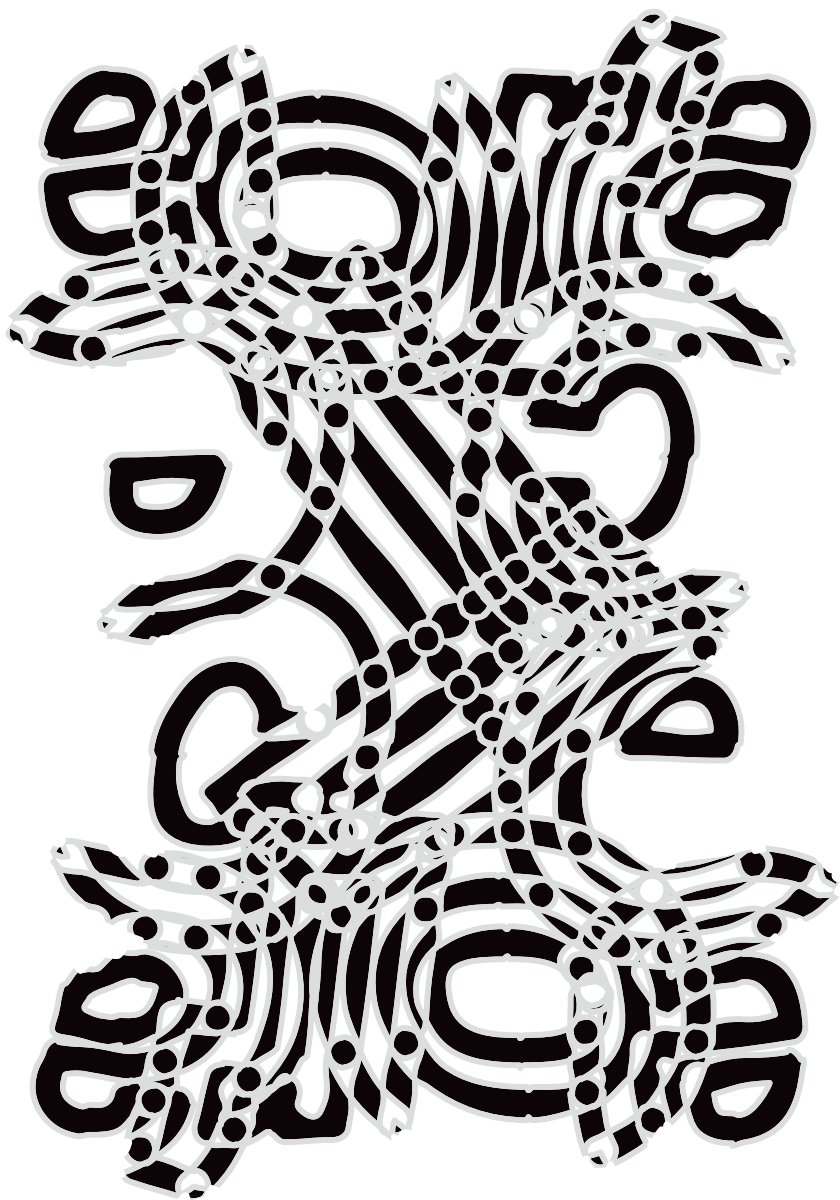
공연, 미술 분야의 젊은 예술가들이 새로운 작품을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

한국 현대미술계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신진 큐레이터를 발굴, 지원합니다.

두산연강예술상

인재양성에 힘써온 두산 초대회장 연강 박두병 선생의 뜻을 이어 2010년에 제정했으며, 미술과 공연 분야에서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만 40세 이하 예술가들을 지원합니다.



2022.9.21.-1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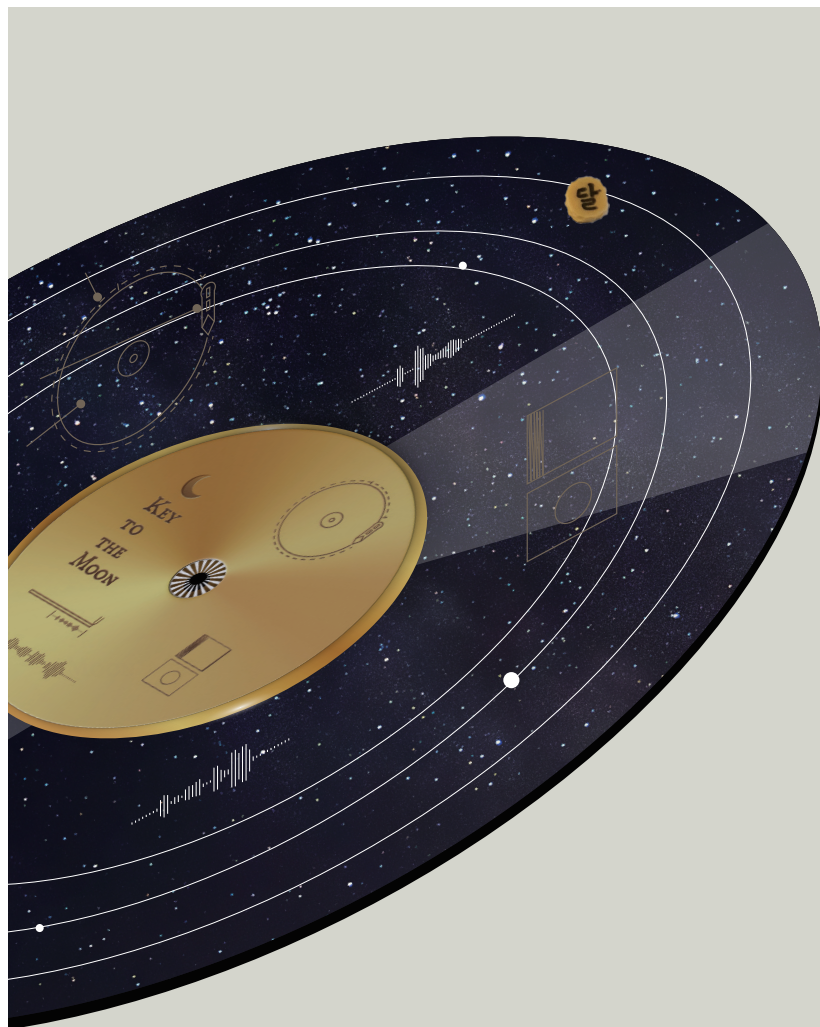
eoracle

이것은 멀리 떨어져있는 작은 행성에서 보내드리려는 선물입니다.

2022. 11. 29(화) - 12. 17(토)

두산아트센터 Space 111

기획: 제작 두산아트센터, 객원출품아트
예매 두산아트센터 doosanartcenter.com 인터파크티켓 ticket.interpark.com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신작
작·연출 윤혜숙

SECOND CHANCE
세컨드 찬스

두산아트센터 2022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YONKANG Hall

리지 뮤지컬 3.24-6.12
작/연출 윤혜숙
베어 더 뮤지컬 뮤지컬 6.22-9.18
히스토리 보이즈 연극 10.1-11.20
광부화기들 연극 12.1-2023.1.22

DOOSAN Gallery

두산아트랩 전시 2022 1.12-2.19
김세은 개인전 3.2-4.2
두산인문극장 기획전 4.20-5.25
kdk 개인전 6.15-7.20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 기획전 8.3-8.31
업체eobchae 개인전 9.21-10.19
두산갤러리 기획전 11.16-12.17

DOOSAN ART CENTER

교육 프로그램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 3.1-12.31
두산인문극장 2022 공정: 강연 4.4-5.30
두산아트스쿨: 미술 4.21-5.26, 10.13-11.10
두산아트스쿨: 공연 7.29-8.19
두산아트스쿨: 창작 워크숍 6.24-12.5

공모 프로그램

공연
DAC Artist 1.5-1.25
공동기획 5.9-6.8
두산아트랩 공연 6.13-7.13

미술

두산갤러리 해외 레지던시 1.3-1.13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 3.1-3.15
두산아트랩 전시 7.18-8.1

Space111

두산아트랩 공연 2022

어느 별 좋은 날 음악극 1.27-1.29
작 박예슬 작곡 조하나 작창 안이호
낙지가 온다 연극 2.10-2.12
작 김도영 연출 민새롬
(겨)털 연극 2.17-2.19
작/연출 김유리
공의 기원 연극 2.24-2.26
각색/연출 김유림
GV 빌런 고태경 연극 3.3-3.5
각색/연출 이은비 대본구성/창작협력 김소정
유디트의 팔뚝 연극 3.10-3.12
작/연출 안정민 가아금작창 김민정
한남 제3구역 연극 3.17-3.19
작 원아영 연출 남선희
일본위 고독인 연극 3.24-3.26
작/연출 연지아

두산인문극장 2022: 공정

당선자 없음 연극 5.17-5.29
작/드라마터그 이양구 연출 이연주
웰킨 연극 6.7-6.25
작 루시 커쿠우드 연출 전해정
편입생 연극 7.5-7.23
작 루시 서버 연출 윤혜숙

공동기획

죽음의 집 연극 4.9-4.24
작 윤영선 윤성호 연출 윤성호
오버더메창: 문전본풀이 판소리 8.6-8.20
작창/각색/연출 박인혜

DAC Artist

광-경계의 시선 음악 9.29-10.12
구성/연출/음악감독/출연 추다혜
클래스 연극 10.25-11.12
작 진주 연출 이인수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SECOND CHANCE 연극 11.29-12.17
작/연출 윤혜숙

20
22

두산연강예술상

20
22

두산연강예술상

